

명락사 다문화가정 법화경 사경대회

“경전 사경 하며 한글과도 친해져요”

오직 하나 일불승의 실상묘법 연화경을 보장보살 간략하게 게...
연꽃으로 잘꾸며진 화장장엄 세계바다 왕사성중 기사글산 다른이...
늘머물러 열반않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시바삼세 부처님께 지심으로 귀극하니
이까지 인연들과 가지가지 방편도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묘법연화경>을 사경하고 있다. 6월 13일 명락사에서 '다문화가정 한글배우기 묘법연화경 사경 대회'가 개최됐다. 한글배우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묘법연화경> 사경은 13일부터 100일간 진행된다.

“한글은 너무 어려워요.”

캄보디아에서 온 로스속행씨가 <묘법연화경> 사경을 시작하자마자 서툰 한글 실력이 부끄러운 듯 한마디를 던졌다. 한국에 온 지 9개월 된 로스속행씨에게 한국은 아직 낯설다. 게다가 한글을 익히는 것이 많이 어렵다.

그런 그녀에게 명락사에서 사경대회를 한다는 소식은 너무 반가웠다고 한다. 로스속행씨의 고향(캄보디아) 친구인 흥나래씨는 3년간의 한국생활로 한국국적을 취득했을 만큼 한글에 능숙하다.

로스속행씨는 “친구만큼 한글에 능숙해질 수 있도록 사경을 열심히 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6월 13일은 명락사의 사경대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이날 오전 서울 봉천동 명락사(주지 무원)에서 다문화가정 한글배우기 <묘법연화경> 사경대회가 열렸다. 법당을 가득 채운 명락사 신도들과 스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30여 다문화가정 불자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명락사에서 처음 열리는 다문화가정 한글배우기 <묘법연화경> 사경대회에 참석한 다문화가정 불자들은 중국의 푸젠, 이경화·송리나·김연자·정해월·심정씨와 몽골의 체취·아즈자야시 그리고 캄보디아의 흥나래·로스속행, 베트남에서 온 가오티누엣씨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무원 스님으로부터 받은 <묘법연화경>을 들고 “100일간 정진해 부처님 법

“반갑다 반가워” 명락사 사경대회 100일 정진

결혼이주여성 위한 쉼터 명락빌리지 등 지원

도 익히고 한글 공부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했다.

스님으로부터 <묘법연화경>을 건네받은 다문화가정 불자들의 얼굴에도 연꽃이 피어올랐다.

이들은 100일간 정진하며 <묘법연화경>을 사경한다. 대회인 만큼 <묘법연화경> 사경을 회향할 한 뒤에는 명락사에서 참여자들을 치하하는 시상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사경이란 경전을 베껴 쓴다는 의미로 불교 수행법 가운데 하나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장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들여 써 내려가면서 그 뜻을 새기고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이 바로 사경인 것이다.

<묘법연화경>은 천태종단에서 가장 근본으로 삼는 소의경전이다. 이를 그대로 묘한 법을 담고 있는 연꽃과 같은 경이라 해서 <묘법연화경>이다. 줄여서 <법화경>이라고도 한다.

무원 스님은 “불교의 훌륭한 수행법의 하나인 사경수행을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해봄으로써 이 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불어 한글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스님은 “문화라는 것은 다양함이 의미가 있다. 다양한 문화가 융합될 때 새로운 것이 창조 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을 돕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돕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명락사 옆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식당과 14개의 원룸을 갖춘 건물이다. 이곳이 바로 2009년 8월 21일에 건립된 명락빌리지이다. 이곳은 이혼하거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결혼 이민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안식처다. 이주 여성과 자녀들은 이곳에서 어두운 상처를 치료하고 미래의 희망을 그려가고 있다. 갑자기 거처를 잃은 결혼 이민여성들은 새 집과 직장을 얻을 때까지 이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 수 있다. 명락빌리지에는 현재 베트남, 몽골, 중국 등에서 온 여성 11명과 그들의 자녀 7명이 살고 있다.

이곳에서는 2009년 11월부터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쉼터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취업 준비, 법률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진정한 다문화 모자가정을 지원하는 시실로 거듭난 것이다.

명락사 인근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학습공간도 마련 돼 있다. 2010년 2월 25일 개원한 관악구 은천동에 위치한 구립 아이돌 어린이집은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장애아동을 함께 보육하고 있다.

법회에 참석한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다문화 시대에 외국인을 감싸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이벤트 아닌 실속 지원 필요해”



명락사 주지 무원 스님

“다문화와 다문화 복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됐고, 그것이 정착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기에 다문화가정 돕기에 나섰습니다.”

무원 스님은 “‘그들’을 ‘우리’의 일원으로 만들려면 우리 전통문화도 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원 스님은 2009년 2월 1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명락사 주지로 부임한 이래 ‘다문화 등(燈) 달기’ 운동을 벌였고 이혼한 이주 여성들의 쉼터인 명락빌리지를 개설하는 등 다문화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런 무원 스님의 다문화가정 돕기 활동으로 이제 명락사는 ‘다문화 사찰’로 불릴 정도가 됐다.

무원 스님은 1979년 천태종 2대 종정 대종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이때 은사로부터 받은 ‘마음 잘 쓰는 것이 도 잘 닦는 것’이란 화두가 다문화 활동의 계기가 됐다.

스님이 본격적으로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은 명락사 주지로 취임하기 전 있었던 인천 황룡사에서 서부터였다. 스님은 그곳에서 새터민과 이주노동자를 만나게 됐고 그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했다.

“주변에 사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집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죠.”

스님은 2006년 당시 새터민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사단법인 영통포럼을 설립하고 통일부 산하 하나원 지원과 대국민 세미나, 외국인 템플스테이 등의 사업을 벌여왔다.

무원 스님은 “이주 노동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업종에서 일하며 경제의 공백을 메꿔주고있다. 또 이주 여성들은 저출산 문제를 풀어주는 등 이들이 나라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적개심을 갖거나 분별심을 낸다면 이는 우리나라 인권과 위상이 점점 뒤쳐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원 스님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 자문위원장·정책자문단 단장으로 활동 중이다. 스님은 무엇보다 다문화가정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마다 다문화 관련 행사가 많아져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이벤트성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은 못돼요. 실속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외국인 스님과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에게 <묘법연화경>을 전달하고 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소) 3.5 × 5cm (중) 5 × 7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상불소영
장량장가
의식식사천
도(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기력이 저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중)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판을 마음속 이루어 주며 일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쁠시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격의심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금강약돌 특산물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저장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돌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격의심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정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 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렛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 차가운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름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현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십시오. 많은 스님, 불자들에게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리에 차가만 해도 오장육부 온 건강하게 하리 편안하게 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썩음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음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음(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격의심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들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